

UMC 한인 평신도연합회 “한인 목회자 징벌적 파송 철회하라”

가주태평양 연회 감독 사무실 항의 방문 및 기도회 개최
 불법적 파송 불가 철회 위한 온라인 서명 전달

UMC 한인 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는 지난 21일, 파사데나에 소재한 UMC 가주태평양연회 그랜트 하기야 감독 사무실을 방문해 UMC 가주태평양연회가 교단법 장정이 규정한 파송협의 절차를 무시한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 담임 목회자 재파송 불가 통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임기 종료와도 같은 재파송 불가 통보가 현실화 되면 서부지역 한인 교회 세 명의 목회자가 오는 6월 30일 이후에는 현재 교회에 다시 파송 받지 못하게 된다.

UMC 한인 평신도연합회는 온라인과 문서를 통해 서명한 전체 3천여명의 지지서명과 한인교회를 향한 압박을 중지하라는 결의문을 전달하며 기도회를 이어갔다.

전국평신도연합회 회장 안성주

장로는 “UMC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 2020년 교단분리 합의안이 발표됐고 내년에 열릴 교단총회를 거쳐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고 은혜롭게 나누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기야 감독은 이런 합의정신을 파괴하고, 불법적인 파송 불가 통보를 했다”며 “미 전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서적인 감리교단의 전통과 교리를 지키고자 한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서부지역 평신도연합회 회장 최정관 장로(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는 “UMC 목회자는 감독 파송제도에 따라 매년 파송받는 것이 사실이나, 교단의 장정을 준수하면서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고 있는 세 명의 한인교회 담임목회자들을 진보적인 연회의 방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섬기는 교회에 다시 파송하지 않겠다는 감독님의 통보는 비신앙적, 비민주적인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서부지역 평신도연합회 상임위원 최윤석 장로(LA한인연합감리교회)는 “그동안 실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다”며 “일방적



UMC 한인 평신도연합회와 벨리연합감리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드림교회 성도들이 가주태평양연회 하기야 감독에게 한인 교회를 향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독일보

로 통보한 목회자 파송 중지의 철회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가주 한인교계에서도 가주태평양연회 하기야 감독의 불법적인 파송권 남용에 항의하며 하

기 감독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남가주 한인 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생신 목사(KACC 창립준비위원장)와 강태광 목사(청교도신앙회복 운동본부 사무총장)는 한인 목회자들에 대한 ‘징벌적 파송’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애틀랜타 대형교회 감리교 목사, 43세에 은퇴 발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임팩트 교회의 올루 브라운(Olu Brown)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기로 발표했다. 크리스천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올해로 43세인 브라운 목사는 2008년 자원봉사자 25명과 함께 임팩트 교회를 창립하여, 매주 4천여명이 출석하는 대형 감리교회로 성장시켰다.

임팩트 교회는 2019년 가장 급성장하는 대형 연합 감리교회 중 5위 안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2018년에



애틀랜타 임팩트 교회 담임 올루 브라운 목사 ©임팩트 교회

는 교회의 성도인 케이사 램스 보텀스(Keisha Lance Bottoms) 애틀랜타 시장이 취임식을 교회에서 열기도 했다.

브라운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어떤 부르심에도 항상 비전이 있을 것”이라며 “임팩트는 내 소명의 일부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25명의 창립 자원자들과 협력할 기회를 주셨을 때, 임팩트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올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셸던 스나이프(Sheldon Snipe) 임

팩트교회 교구 관계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런 변화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것이고, 그 변화가 우리를 데려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로버트 M. 프랭클린 주니어(Robert M. Franklin Jr) 국제신학센터 전 총장은 브라운 목사를 “남들이 모방할 만큼 21세기 도시 사역에 혁신을 가져온 선구자”로 평가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714)718-5239, (213)531-7215
 admin_kor@itsla.edu
 www.itsla.edu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2021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온라인 수업 제공 유학생 1-20 명급

■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 학위과정 | 지원자격 |
|--------------------------------|--|
| MATS (신학 석사) M.Div (목회학 석사) |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 D.Min (목회학 박사) |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

■ 장학금
2021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장학금 혜택 목회자(30%), 선교사(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 | |
|--------|---------------------------|
| 원서접수 | 20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
| 합격자 발표 | 2021년 6월 10일(목) |

■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 학위과정 | 입학 전형료 | 학점당 수업료 |
|------------|---------|---------|
| MATS (2년) | USD 50 | USD 250 |
| M.Div (3년) | USD 50 | USD 250 |
| D.Min (2년) | USD 100 | USD 350 |

■ 여름학기 일정(5주)
 7월 5일(월)~8월 6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_kor@itsla.edu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
이영훈, Ph.D.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유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시길 바랍니다.

굿네이버스, 아프리카 식수 위생 지원 위한 '굿워터 프로젝트' 실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 kr.goodneighbors.us)는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인근의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굿워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UN 세계물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에 사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굿네이버스 니제르의 안승진 지부장은 "니제르는 상하수도 인프라를 잘 갖추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기에 고인 흙탕물을 식용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인분과 가축들에 의해서 오염된 물

이다 보니 수 많은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굿네이버스 USA는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지원하여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빈곤한 국가중에 속하는 니제르, 차드, 잠비아 아동들을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학교에 우물 뿐 아니라 물탱크와 식수대, 그리고 화장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도 지원할 수 있으며 아동들에게 기초적인 위생 교육



오염된 식수원을 가축과 함께 사용하는 아동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정

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아프리카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물, 식량 위기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친다면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매월 \$10씩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개인후원자뿐 아니라 교회, 단체에서 일시 후원으로 함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굿네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후원 신청 문의 전화는 844-357-7797 로 하면 된다.

센트럴신학대학원 제119회 졸업식, 40명 한인 졸업생 배출



센트럴신학대학원 2019년 졸업식 기념촬영 ©센트럴신학대학원

올해로 개교 120주년, 한국부 10주년 맞아 119회 졸업식 통해 총 94명 졸업생 배출

캔자스 사니 본교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지역 본교를 둔 센트럴신학대학원(www.cbts.edu)이 지난 15일, 119회 졸업식을 갖고 총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총 3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열린 졸업식은 13일 졸업생 축복의 시간, 14일 동문회, 15일 졸업식 순서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한국, 중국, 미얀마, 이디오피아 등 세계 곳곳에서 모인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 학생 40명(디플로마 17명, 석사 18명, 박사5명)도 포함됐다.

졸업식에서는 저명한 작가이며 종교와 현대의 영성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해설자 중 한 명인 다이아나 볼터 바스(Diana Bulter Bass) 박사가 졸업 연사를 전했으며, 특별히 미얀마 학생의 아

름다운 기타 연주와 미얀마어로 부른 찬양을 나누며 정치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로 개교 120년, 한국부 설립 10주년을 맞는 센트럴신학대학원은 1902년 5월 10일, 2명의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미국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 사역자들을 배출해왔다. 센트럴 한국부는 10년 동안 1천여 명의 한인학생들과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미국과 한국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센트럴신학대학원이 새로운 100년과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센트럴신학대학원은 센트럴 120주년과 한국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음악회, 기념 서적 발간, 다양한 응모 등으로 학교와 학생을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센트럴신학대학원은 120년의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혁신적 신학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있는 120년 전통의 명문 신학대학원이다.

1962년 ATS, 1979년 HLC 의 정회원으로 인준된 이래도 꾸준히 양질의 신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학교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제공하는 과정으로는 기독교영성 디플로마 (CFD), 목회학석사 (M.Div), 기독교상담학석사 (MCCC), 선교적교회학석사 (MAMCS), 목회학박사 (D.Min) 등이 있다. 입학 또는 교수 지원은 이메일 ks@cbts.edu 또는 전화 913-667-572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 하베스트 교회에 패소... 소송비 135만불 지급한다

미국 하베스트 락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예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 정부가 종교적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해 수용력 또는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다른 유사한 집회에 부과된 제한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비상 명령으로 예배당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비상 명령 선포와 관련된, "대중에게 '자발적(voluntary)'이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음(not enforceable)'이 명백하면, 주 정부가 권고, 모범 사례, 주의사항,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회 대변인을 맡은 매트 스타버(Mat Staver) 리버티 카운슬 의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은 이제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으며 교회와 예배당의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를 다시는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체 안(Che Ahn) 목사와 하베스트교회, 하

베스트국제부에 감사드린다"며 "안 목사의 리더십과 용기가 횡포를 무너뜨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목회자와 교회를 해방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하베스트교회와 하베스트국제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모인 제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심 판사는 작년 10월 찬성 2표 반대 1 표로 제한 명령은 정당하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제한 명령이 교실이나 영화관 등 다른 실내 집회 행사와 마찬가지로 예배당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일부 대중 활동은 모든 카운티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월,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정통 유대교 회당 두 곳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뉴욕주 종교 모임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올해 4월, 캘리포니아 주는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계속되자 예배당에 대한 수용인원 지침을 "의무사항(mandatory)"에서 "강력한 권고사항(strongly recommended)"로 하향시켰다.

김유진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 ABHE | TRACS | CHEA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 | |
|-------------|---|
| 학위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
| 특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 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 6월 17일(목) 오후 3시 (Offline) 입학설명회
-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 어) 입학설명회
-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714-525-0088(Ext 101)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내일의 멕시코 기독교 지도자를 세운다!”

[인터뷰]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상훈 선교사, 이성미 선교사

“사명감 있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드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 양성이 멕시코의 복음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학장으로 부임한 이상훈 선교사를 만나 학교에 대해 들어봤다. 그의 갑작스런 이임 소식은 남가주 한인교회에 적잖은 충격과 도전을 줬다. 이상훈 선교사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순종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된 선교사’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신학교이기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지 궁금했었다.

오랜만에 LA를 찾은 이상훈 선교사로부터 주저함 없이 선교지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가슴은 “멕시코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두 가지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상훈 선교사는 20년 넘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이사로서 섬기며 누구보다 학교의 비전과 선교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설립자 임원석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망설임 없이 선교지로 향했다고 했다.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현지인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 20여 년 전 세워져, 멕시코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실질적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상훈 선교사는 “저희 신학교를 통해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멕시코 현지인 마을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멕시코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멕시코 장로교단 내 목회자를 양성하는 공신력 있는 선교기관으로 멕시코와 남미,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하는 일문 일답.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1998년 임원석 선교사님께서 멕시코의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멕시코 현지 신학교입니다. 현재까지 22회 졸업을 통해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160여 명의 남성 목회자들이 멕시코 각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장로회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은 교사, 주일학교 봉사자, 음악 사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상훈 선교사, 이성미 선교사 ©기독일보

역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민족 장로회교회는 3500여 개 교회와 73개 노회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산하 신학교를 두고 있는데요.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멕시코 민족 장로교 내 신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가장 많으며, 영성훈련과 교육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신학이 바로 서야 바른 선교가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사명감 있는 영적 지도자 양성을 선교의 목표로 삼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4년의 정규 신학 대학 과정을 거쳐 우리 졸업생들은 ‘사명감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검은 정글이라 불리는 멕시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서부 바하칼리포니아주의 주도인 멕시코칼리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내 개신교회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미 서부의 라틴계열 유명 신학교 교수들을 초빙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높은 평가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영성에

기초한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 교육과 더불어 경건 훈련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거의 없지만 저희 신학교 학생들은 새벽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생들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새벽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차례 광야 철야기도회를 통해 신앙 훈련을 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성경 통독 시간을 넣어 학생들은 2주에 걸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완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목의 강의를 이수할 수 없습니다.

또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멕시코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신학교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학비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신학 공부와 영성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 과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원주민 2세 학생들 가운데 사명감으로 주께 헌신한 청년들을 현지 멕시코 민족 장로회교 산하 노회나 교회가 선발해 저희 신학교에 추천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밟게 됩니까?

“멕시코에서는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선교’가 현재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시급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생들은 다시 현지 선교사로 재파송 되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멕시코 선교에서 신학교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는 선교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멕시코는 그동안 해외선교사들에 의한 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가 이뤄졌지만 사명감 있는 현지인 영적 지도자의 결핍은 늘 멕시코 선교를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현지 신학교들은 전문 신학 교수를 초빙하지 않아 성경학교 수준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교육이 야간이나 주말 교육으로 정도로만 이뤄져 전문적으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신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목회하는 외국인 선교사가 없는 것처럼 멕시코 복음화는 멕시코 현지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지에서 사명감 있는 사역자를 양성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선교 전략보다도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바른 신학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선교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에 기초해 멕시코 복음화를 선도할 지도자들과 사역자 양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미주 한인 교회가 멕시코 신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미주 한인교회가 단기선교와 선교지 결연 등으로 멕시코 선교에 협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사명감 있는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해 복음 전파를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10년 혹은 20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기적 선교전략적 측면에서 현지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시급한 사역입니다.

한 달 150달러면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학생 1명이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1천 5백 달러면 학생 10명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멕시코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멕시코 현지 복음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가난한 오지에서 오기 때문에 학교는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일어난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희 신학교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멕시코 복음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주의 교수들을 초빙해 더욱 역량 있는 목회자를 배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복음화와 더불어 세계 선교에 비전을 두고 이슬람권 나라들에도 사역자를 파송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 선교 사역사들과 협력하고, 선교에 뜻을 같이 하는 한국과 미국 교회들과 동역하고자 합니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의인하여 왔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예교수(영신대 명예교수), 이원희교수(예수전도단), 송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은목사(주영대주교대), 신영민목사(동인대 대표), 유관지목사(영일교회), 김민석목사(KCC공명교회)

• 영회 책은 아메리카를 주문화할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의인하여 왔었다’는 목회자들의 찬양과 기도의 찬양입니다. * 체크오더양: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새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 동역사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7

“팬더믹 가운데 준비하는 2021 치아파스 단기선교”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지난 5월 신학교가 본격 여름 방학에 들어가는 때쯤 수년 전부터 우리 신학교를 후원하는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멕시코리 목장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귀 교회는 전 교인의 선교 참여 독려를 위해 목장별로 후원하는 선교지(선교사)를 지정하였다. 멕시코리 목장은 우리 신학교가 위치한 지역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여전히 교회마다 대면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때 단기선교를 직접 나가 사역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단기선교에 준하는 선교를 하고 싶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달라 했다.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 의논하고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산호세 교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남부 치아파스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노트북을 활용하여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IT 교육을 zoom 동영상 훈련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현지 목회자들의 목회지 형편이 열악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워드작업이나, 교회 소개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드나 엑셀, 사진 작업 등의 기술이 보급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치아파스 지역 교회 어린이들에게 zoom 동영상으로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두 제안을 나눈 후 몇 주 되지 않아 멕시코리 목장 팀장에게서 대답이 왔다. 선교사들의 두 가지 제안을 모두 다 채택하여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에 알려서 정식 2021 멕시코 치아파스 단기선교팀을 조직해 진행하기로 했다는 답이었다. 그들의 선교적 열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였다.

나와 선교팀 대표 두 분과 전반적인 미팅을 하였다. 단기선교팀은 며칠 되지 않아서 17명이 합류하였다. 매일 중보기도 일정을 잡았다. 일주일마다 줌으로 전체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졌다.

단기팀은 교회 선교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짜고, 마침내 선교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치아파스 현지 선교센터에 훈련을 받는 대학원생의 공부를 위하여 그리고 이번 목회자 IT 훈련을 돕기 위하여 크롬북 10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기

로 했다. 또한 사용한 노트북들을 모아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 한편 어린이 VBS를 위해 영어권의 강사와 교사가 자원하였다.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재정과 자료 등이 준비되었다.

팬더믹의 상황 아래 과연 zoom 영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려는 성도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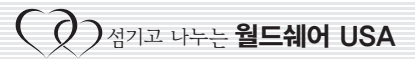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필자는 이번 단기선교팀의 시작부터 모든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갈 것이다. 어쩌면 대면선교를 못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특히 이슬람권과 같은 기독교 집회가 허락되지 않는 자유롭지 못한 지역에서의 창의적 선교 접근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세계선교와 교회 개척을 교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두어 지켜 주실 것이다. 설령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섭리라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위해 방학 동안 우리 선교사들은 저남부지역 치아파스로 이번에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다녀올 예정이다.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다. 가는 시간만 5일을 잡는다. 피곤함, 안전, 말라리아, 코로나, 설사병, 단기선교팀의 준비, 건축 지원한 3교회의 예배당 헌당식, 동문 목회자 심방사역 등 계획한 모든 일정을 소화해 내고 은혜중에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올여름의 넘치는 사역들을 앞두고 선교사의 가슴은 이전 어느 때보다 두근거리고 있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⑧ “베뢰아를 찾아서”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피하여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뢰아로 이동합니다. 베뢰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73킬로(Km) 떨어진 도시로 해발 약 2천미터인 베르미온 산(Vermion)기슭에 자리 잡았던 도시입니다. 밤중에 출발한 바울일행은 로마시대 주요 간선도로인 이그나티아(Via Egnatia)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방문했던 도시들은 모두 이그나티아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현재는 ‘베리아(Veria)’라 불리는 베뢰아는 바울 당시에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더불어 마케도니아 3대 주요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다. 베뢰아는 고대도시입니다. 베뢰아는 BC 9세기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뢰아에 관한 오래된 기록은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B.C.5세기(437년)에 남긴 기록입니다.

베뢰아가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마케도니아 에르게아스 왕조 시절입니다. 에르게아스 왕조는 마케도니아 왕국 첫 왕조입니다. 에르게아스 왕조를 대표하는 인물은 빌립보를 세운 필립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3세(대제)입니다. 필립2세는 마케도니아를 통합하였고 알렉산더 대제는 이집트와 인도까지 확대하여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절 마케도니아 왕국은 통일된 주화를 발행했는데 그 주화를 베뢰아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시절에 베뢰아에서 아테네와 고린도처럼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는 베뢰아 체육대회는 당시 그리스 각지에서 선수들이 출전했던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베뢰아가 영향력 있는 도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에그나티아 고속도로의 건설되고 로마 정부가 베뢰아를 활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때부터 베뢰아는 본격적으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B.C. 2세기 중반부터 1세기에 베뢰아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조용한 농업도시였던 베뢰아는 로마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뢰아는 원래 감, 배, 사과, 석류와 복숭아 등으로 유명한 농업 도시였습니다. 할리아몬(Haliacmon)과 악시오(Axios), 두강이 주는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질은 과일 수확량도 품질이 탁월한 과수원 도시로 알려졌었습니다. 이런 농산물 생산 덕분에 베뢰아는 농산물 장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에그나티아 도로의 건설덕분에 교역이 많아져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뢰아에는 많은 외부인이 찾아와 정착하였고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같은 상업도시로는 발전하지 못했고, 장색 세공업과 석공업의 중심지로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베뢰아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정착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2차 대전 전까지 그리스 전체에는 7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 그 중에 6만 명 정도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B.C.2세기 하반기에 마케도니아 로마 총독 나이우스 에그나티우스가 건설한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는 당대 많은 도시들을 번창하게 만든 뒷줄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도로는 로마가 제국을 통제하고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만들었지만 가장 큰 혜택은 바울이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피드나(Pydna)전투(B.C.168)

에서 로마가 이기자 로마에 투항한 첫 번째 도시가 베뢰아입니다. B.C. 49-48년에는 시저(Caesar)에게 승리를 거두기 전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군대와 함께 지냈던 곳이 베뢰아입니다. 키케로가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뢰아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모범적으로 삼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 신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베뢰아는 사도바울의 사역에 큰 결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와서 주민을 선동하여 소란스럽게 하자 바울은 혼자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했습니다(행 17:10~15).

사도바울과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했던 소바더의 아버지 부모(행 20:4)가 베뢰아의 첫 결신자로 알려집니다. 선교여행을 정리하고 마케도니아를 거쳐 아시아로 가는 길에 바울의 제자들이 동행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부모의 아들 소바더가 동행합니다. 소바더의 동행이 베뢰아에 바울의 사역과 활발한 교회활동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소바더가 로마서 16장(21절)에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되는 소바시더와 동일인물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천주교 교회전통(교황령 :Apostolic Constitution)에 의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가 베뢰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성인들을 기리는 정교회 달력(Calendar of Orthodox)에 의하면 바울의 결혼을 보관했던 ‘가보(딤후 4:13)’가 베뢰아 교회 초대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여하간 바울의 선교로 베뢰아 지역에는 교회가 잘 세워졌었던 같습니다. 그 후에 베뢰아 지역의 기독교 활동은 활발했었고 13세기와 14세기에 세워진 베뢰아 교회들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예배 비평하는 성도들...이대로 괜찮은가?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3)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신의 신앙적 척도에 맞추어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들을 찾아 다닌다. 특히 요즘 편리해진 인터넷을 통해서 또 더욱더 크게 활성화 되어가는 온라인 예배 교회들을 찾아 엄마찾아 삼만리 인터넷 쇼핑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오늘날 예배에 심각성이 있다. 즉 회중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내산 예배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중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일을 다 해 연주하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대위의 연주자들(설교자, 찬양자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 참 짱이야, 좋은 윤리적 교훈들이네!” 그리고 예배음악 찬양인도자들과 연주자들이 회중들과 함께하는 찬양에는 함께 찬양하기보다 그것을 감상하고 평가하며 “오늘 싱어의 소리가 별로네, 아 참 멋있는 매력적인 소리네, 혹은 앙상블이 영망이네.”

회중들로 하여금 이런 평가들이 주 임무가 되게 하는 오늘날 예배의 풍토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다분히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이다. 이 같은 일은 회중들에게 올바른 예배관을 교육시키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더욱 안타깝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올바른 교육을 뒤로 하거나, 또 지도자 자신이 올바른 예배관을 갖고 현장에서 잘못된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온전한 예배의 모형이 되는 시내산 예배처럼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룹과, 청중들의 역할에 대한 임무와 드림의 원리가 바로 정돈 되어야 할 것이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시대 온전한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최선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훌륭한 연주자들로 세우기 위해 예배 지도자는 그 일을 돕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회중들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입술을 크게 벌리고 목소



한 집회에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다.

리를 높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말이다.

한편, 노진준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 월드미션대학교 예배음악 철학 특강 시간에 “복음적 예배”라는 강연을 통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예배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훌륭하게 연주(Performer)할 수 있게 무대에서 열심히 조력(Helper)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함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참 잘한다” 회중들을 칭찬하게 하시도록 양보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뛰어난 오케스트라 연주에서의 지휘자는 단원들이 분명한 역할을 하게 지도함으로 훌륭한 소리를 뽑아내어 아름답고 맛있는 화모니를 만들어 낸다. 필자는 지난 2008년 1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마리스 안손스(Mariss Jansons, 1943-2019)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 그룹의 하나인 왕립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Royal Concertgebouw Orchestra)와 함께 브람스 교향곡 2번(Symphony No.2 in D major, Op.73 by J. Brahms(1833-1897)을

연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다.

100여명에 가까운 단원들이 각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연주자들 거의 모두가 의자에 몸을 맞기 보다는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버쩍 버쩍 들어가며 흥분에 겨워 연주하는 모습은 시종일관 보이는 들로 하여금 머리를 빼죽 빼죽 세우게 하며 전율을 느끼게 했다. 감동의 연속이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이 지휘자와 연주자들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예배 지도자와 회중들이 행해야 할 올바른 임무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모든 예배자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설교자들은 주연배우의 마음이 되어 갓은 미사어구를 사용하며 회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을 전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준귀케 하기 위한 협력자 역할의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음악인들 또한 철저히 기능, 수단 이 되어야 할 음악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에만 심취되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망상에서 모두 벗어나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준귀케 하기 위한 협력자 역할의 자리를 굳

게 지켜야 한다.

한편 회중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예배를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에 크게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준귀케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Participation)해서 전심으로 드리는(Giving)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찾을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이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요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디즈니플러스, 가족 애니메이션에 동성 부모 등장 논란

‘더 프라우드 패밀리’ 시리즈 2022년 재출시, 남자 동성 커플 등장 로맨틱 코미디, 이제 세상을 뒤집는 도덕 혁명의 엔진으로 사용돼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디즈니 채널은 12일 트위터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된 ‘더 프라우드 패밀리’(The Proud Family) 시리즈를 2022년 재출시한다면서 남자 동성 커플을 등장시켰다.

앞서 원작에서는 10대 초반의 흑인 미국인 소녀 페니가 청소년기를 헤쳐가는 과정을 다뤘다면, 이번 시리즈는 14세 사회활동가 마야 레이 보위츠-젠킨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디즈니사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캐릭터’와 ‘정치적 올바름’을 포함시키려 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디즈니와 자회사 픽스 스튜디오는 영화 ‘온워드’(Onward)와 ‘아웃’(Out)에서 각각 레즈비언과 게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디즈니 채널 만화 ‘오울 하우스’(Owl House) 제작자는 작년 여름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양성애자라고 밝힌 바 있다.

디즈니는 몇 년 전부터 성소수자 캐릭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7년 디즈니 채널 시리즈 ‘엔디 맥’에는 동성 청소년 간의 연애가, 2017년 디즈니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에는 동성애적 암시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보이콧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LA 그레이스커뮤니티



디즈니 소속 유명 프랜차이즈들. ‘디즈니 제국’이라고 불려도 손색 없을 대중문화 콘텐츠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다. ©Wreck it ralph2 캡처

교회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디즈니의 트랜스젠더 캐릭터는 어린이들을 파괴하고 사악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예”라고 지적했다. 남침례신학교 알버트 몰러(Aibert Mohler) 총장은 작년 자신의 팟캐스트 ‘더 브리핑’에서 가족친화적 홀마크 채널(Hallmark Channel)

이 제작한 영화에도 동성커플이 포함된 것에 대해 “로맨틱코미디가 이제 세상을 뒤집는 도덕 혁명의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혜진 기자

미 공영방송 PBS, 빌리그래함 복음주의 운동 재조명



디즈니 소속 유명 프랜차이즈들. ‘디즈니 제국’이라고 불려도 손색 없을 대중문화 콘텐츠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다. ©Wreck it ralph2 캡처

미국의 공영방송(PBS)이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로 불리운 빌리 그래함 목사와 그가 미국 정치에 끼친 영향을 다룬 새 다큐멘터리를 17일 처음 방영했다.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American Experience)’는 30년간 역사적인 인물들을 집중 조명해 온 기획 다큐물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빌리 그래함’은 1918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그의 출생부터 전 세계적인 복음전도자가 되기까지의 일대기를 들

려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영화의 사라 콜트(Sarah Colt) 감독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공영방송이 그를 다시 부각시킨 이유로 “미국 역사에서 기독교와 정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그의 역할과 이야기는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영화는 그래함과 그의 초기 근본주의적 설교가 1945년 ‘원자폭탄’ 이후의 세계(post-atomic

world)’가 가진 종말론적 불안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에게 삶을 헌신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는 이후 그래함 목사가 어떻게 초기 설교 방식에서 벗어났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고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명했다.

콜트는 그래함이 미국 정치에 끼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그래함과 드와이트(아이젠 하워) 대

통령과의 관계는 미국 역사에서 기독교와 정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그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99세로 사망하기까지 2억1천만 명에게 직접 설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화는 그래함이 미국의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촉매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준다.

콜트 감독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빌리 그래함이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많은 미국인들, 특히 젊은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의 삶과 유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래함이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가에 대한 맹세, 화폐, 공식적인 국가 좌우명에 하나님을 추가시키며, 미국을 기독교 민주주의로 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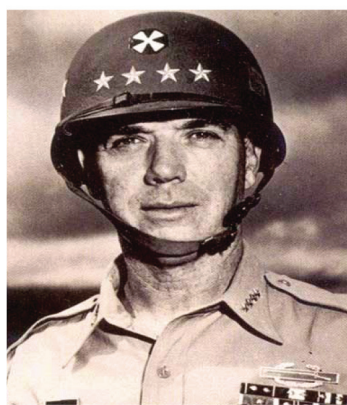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족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美 국무부 “北 종교 자유 최악... 인권 정면으로 다룰 것”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부를 그린 그림 ©godreports

미 국무부는 12일 공개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19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랐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국장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려고 한다.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종교 자유를 가장 유린하는 국가 중 하나는 중국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우리는 북한 이슈를 지금과 같이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 다.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 평화·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된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 종교 자유 현황을 이 기술하고 있으며, 17장에 걸쳐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이유로 탄압받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은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조항과 더불어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

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을 적시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오래 지속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판한 작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인권 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목인했다는 이유로 특별우려국(CPC)로 지정돼 왔다.

북한에서 5~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2019년 비정부기구(NGO)의 주장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내 수용소에 기독교인들은 5~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달하며, 종교와 관련된 살인 126건, 실종 사건 94건 등 북한 내 종교 탄압이 1,411건 지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작년 6월 한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포함된 것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북한 정부는 모든 시민이 종교 활동에 관여했거나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이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힐송교회 휴스턴 목사

“칼 렌츠 목사 스캔들 내게 책임 있어...”

뉴욕 힐송교회 칼 렌츠의 목사가 스캔들과 리더십 문제 등으로 해고된 후,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 목사가 첫 공개 인터뷰를 했다.

휴스턴牧사는 NBC 'Today 쇼'에 출연해 칼 렌츠(Carl Lentz) 목사를 둘러싼 논란과, 또 다른 2개의 힐송교회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인터뷰에서 NBC 공동 진행자인 사바나 구스리(Savannah Guthrie)가 "칼 렌츠 목사가 도덕적 실패와 신뢰 위반으로 해고당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더 일찍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휴스턴 목사는 "같은 같이였다. 그는 독특한 성격이고, 그가 많이 그리운 점도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문제에는 거짓말, 자기애적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전에 알고 있어야 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고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트코스트(East Coast) 지역의 힐송교회들을 이끌던 렌츠 목사는 주류 언론에서 유명 목회자로 자주 주목을 받았다. 그의 교회에는 저스틴과 헤일리 비버, 케빈 듀란트, 셀레나 고메즈, 카일리 제너 등과 같은 A급 스타들도 출석했다.

또 그는 전 뉴욕 닉스 선수인 타이슨 찰들러의 육조에서 저스틴 비버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 스캔들이 터진 후, 비버는 자신은 더 이상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며, 자신의 목회자는 처지홈(Churchome)의 유다 스미스 목사였다고 렌츠 목사와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다.

휴스턴 목사는 칼 렌츠 목사와 유명인사들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힐송교회가 저스틴 비버를 포함한 A급 스타 교인들에게 일반 교인들과 다른 기준을 허용했다. 유명인들과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문화가 발전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또 다른 면도 있다. 분명히 잘 알려진 교인 중 한 명은 저스틴 비버다. 그가 호텔 객실을 부수고 캐나다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와 오늘을 비교해 보라.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유튜브 영상 캡처

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칼 렌츠의 사역) 전부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렌츠 목사가 유명 연예인들과 많은 교인들을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게 더 관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저와 아내 보비 사모는 유명한 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짜증난다"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일부 사람들은 렌츠 목사가 휴스턴 목사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휴스턴 목사는 "렌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이를 칭찬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는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분명한 여러 가지 일들 중 일부에 대해 많은 실망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어떤 것은 거짓이지만 다른 것들은 사실"이라며 "저는 여러 번 반성했으며, 실수를 저질렀고, 훨씬 더 나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성경적 입장 및 동성애자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포용하며 함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더욱 나아지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는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대변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적극적인 동성관계에 대해 보수적이다. (그러나) 난 모두 환영한다."

강혜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7:00
평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목회이며,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모임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성지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엔) (소셜메시)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친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외가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토)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니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빌 무어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저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MP블리저들 30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교육부 후원예배
종교동부 오전 11:00 (수요예배예배: 오후 6시)
종교동부 오전 11시 (금요예배예배: 오후 7:3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818)936-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쁘므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北서 인쇄된 뼈라가 평양에 대량 살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체제 비판하고 개방 요구하는 내용... 당국 '당혹'

한국이 아닌 북한 내에서 제작·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전단(일명 뼈라)이 평양 시내에서 발견돼 북한 당국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전단에는 김정일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평안남도 주민 소식통이 지난 14일 "며칠 전 평양에서 당국을 비난하는 뼈라 사건이 터져 사법 당국이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에서는 뼈라를 주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 절대 함구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 소식은 주민들 속에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10일 평양시 외곽 사동구역에서 의문의 전단 살포 사건이 발생해 평양시내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며, 아침이 밝으면서 발견된 전단은 장전 협동농장의 밭과 주민 거주지역의 주택가에 대량으로 널려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단의 양이 많아 구역 안전부와 인근 부대까지 동원돼 3일 동안 수거해 불태웠으며, 일부는 농장원들이 거주하고 있

는 단층주택의 지붕 위에 널려 있어 군인들이 이를 수거하느라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특히 평양의 한 간부 소식통은 이번 전단이 북측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여 과장이 컸다고 전했다. 그간 남한에서 살포한 전단이 비닐막을 입힌 고급 종이에 인쇄된 것과는 달리, 이 전단은 질이 낮은 북한 종이에 인쇄됐다는 것이다. 인쇄 상태도 거칠었다고 했다.

소식통은 "보안부 보위부 등 사법 당국이 총동원되어 뼈라의 출처를 캐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뼈라의 내용은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김정은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자', '우리(나라)는 개방해야 잘 살 수 있다', '김여정은 악종' 등 매우 예민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구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혀 왔다.

이어 "과거 공공장소나 사람이 드문 건물 벽에 최고 존엄과 체제를 비판하는 낙서 사건은 종종 발생했으나, 대규모로 반동적인 뼈라가 살포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요즘 당국에서 전국의 인쇄시설에 대한 집중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뼈라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영국인 대다수 "진보 이데올로기 지지 안해"



©Unsplash

"미국을 깨우자"는 '우오크'(woke) 활동가들의 사상은 많은 영국인들이 실제로 믿는 것과 다르다고 새로운 여론조사가 밝혔다.

2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상식을 위한 캠페인(CCS)은 공공 화장실과 사춘기 호르몬 차단제, 기후 시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2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계속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거의 절반(48%)은 남성이 여성으로 자신을 재정의하고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5명 중 1명(19%)만이 이를 지지했다.

지난해 9월, 영국 정부는 의학적 진단 없이 젠더 자기 인식(self-identification)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4년 '성별 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 개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낸 후 내려졌다.

CCS 여론 조사 응답자들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이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요법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61% 대 13%).

3분의 2 이상(68%)의 응답자는 모유 수유를 'chestfeeding'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반대했다. 'chestfeeding'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아기를 수유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앞서 지난 2월 영국 브라이튼과 서섹스대학병원(BSUH) NHS 트러스트는 조산사와 간호사에게 임신한 여성과 사람(pregnant women and people), 모유수유(breastfeeding)와 'chestfeeding', 어머니와 출산부모(mothers and birthing parents) 등과 같은 '성 중립적 언어 정책'을 최초로 도입했다.

CCS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5%만이 'chestfeeding'과 같은 용어 사용을 지지했다.

CCS 마크 레하인 이사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큰 긍정적인 발견이 있다. 대중은 분열적인 문화 전쟁 이슈가 일을 주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투표된 이슈 중 어느 것도 거의 대다수를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을 양극화시킨 종류의 극단적인 사상을 수입하려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영국 대중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의 시아란 켈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환영하면서 "언론의 일부 섹션이나 로비 그룹을 제외한 일반 대중 사이에서 트랜스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지 않다"라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동가들이 선전하는 급진적 사상이 해를 끼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비종교인 호감 종교,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순

2021년 현재 한국인 종교 분포는 개신교(기독교)가 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3-4월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0명에게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지' 묻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신교에 이어 불교가 16%로 엇비슷했으며, 천주교가 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개신교는 20대 14%, 30대 19%, 40대 15%, 50대 14%, 60대 이상 23%로 드러났다.

불교인 비율은 20대 4%, 30대 6%, 40대 11%, 50대 23%, 60대 이상 25% 내외로 고령층에 집중돼 있었다. 천주교는 전 연령대별로 3-8% 정도로 고른 편이다.

지역별 특성도 보였다. 불교인 비율은 부산/울산/경남(32%)과 대구/경북(24%)에서 높았고, 개신교인 비율은 영남 이외 지역(20%대 초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천주교도 영남은 2-4%, 비영남 7-8%였다.

개신교는 광주/전라 22%,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21%, 인천/경기 20%, 대구/경북 12%, 부산/울산/경남 6% 순이었다.

연도별 분포는 개신교의 경우 1984년 17%에서 1989년 19%, 1997년 20%, 2004년 21%, 2014년 21%로 계속 상승하다, 2021년 17%로 다소 감소했다.

불교는 1984년 19%, 1989년 21%, 1997년 18%, 2004년 24%로 증가하다, 2014년 22%, 2021년 16%로 감소 추세였다. 천주교는 꾸준히 6-7%대를 보였다.

◆비종교인 과거 신앙 경험, 개신교가 13%로 가장 많아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가장 호감가는 종교를 묻은 결과, '없다'가

61%로 가장 높았고, 불교 28%, 개신교 20%, 천주교 13% 순이었다.

비종교인들이 가장 호감가는 종교에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순이었다.

또 비종교인에게 과거 신앙 경험을 묻은 결과, 25%가 '과거 믿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과거 신앙 경험 종교로는 개신교가 13%로 가장 많았고, 불교 9%, 천주교 3%가 뒤를 이었다.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가 54%로 가장 많았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19%,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7%,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8% 순이었다.

◆종교 없는 이유, '관심이 없어서' 54%

시간 순으로 보면, '관심이 없어서'는 1997년 26%에서 2004년 37%, 2014년 45%, 2021년 54% 등 계속 상승했다.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는 1997년 10%, 2004년 18%, 2014년 15%, 2021년 8% 등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는 1997년 4%, 2004년 2%, 2014년 1%, 2021년 1%였다.

종교인들에게 종교시설 방문율을 질문한 결과, '주 1회 이상'의 경우 개신교인 57%, 천주교인 42%, 불교인 1%로 나타났다.

'월 2-3회'는 천주교인 10%, 개신교인 8%, 불교인 1%, '월 1회'는 천주교인 10%, 개신교인 9%, 불교인 8%, '연 3-5회'는 불교인 16%, 개신교인 5%, 천주교인 4%, '연 1-2회' 불교인 50%, 천주교인 13%, 개신교인 6%, '몇 년에 1회' 불교인 14%, 천주교인 11%, 개신교인 4% 등이었다.

송경호 기자

한국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52% 찬성 38%



| | 2001년 | 2013년 | 2014년 | 2017년 | 2019년 | 2021년 |
|--------|-------|-------|-------|-------|-------|-------|
| 연령별 | | | | | | |
| 20대 | 26% | 52% | 66% | 66% | 62% | 73% |
| 30대 | 17% | 40% | 50% | 41% | 49% | 52% |
| 40대 | 16% | 19% | 35% | 34% | 39% | 34% |
| 50대 | 12% | 7% | 19% | 22% | 23% | 28% |
| 60대 이상 | | 6% | 13% | 16% | 13% | 17% |

- 2001년의 20대는 만 20~29세, 2013~2019년은 19~29세, 2021년부터 18~29세
- 2001년 당시 50대는 50대 이상. 2001년 20대는 2021년 40대가 되었음
- 2013년 4월 뉴질랜드, 이후 프랑스, 미국 여러 주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이뤄져 화제
- 2017년 5월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적 허용. 2019년 대만 첫 법적 동성 부부 탄생
- 2001년은 면접조사, 2013년 이후는 전화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제448호 www.gallup.co.kr

© 한국갤럽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조사에서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27%, '양육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46%, '양쪽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12%였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이하 갤럽)은 지난 18일과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이에 따르면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즉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38%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은 저연령일수록(20대 73%, 30대 52%, 60대 이상 17%), 반대는 고연령일수록(20대 21%, 40대 52%, 50대 61%, 60대 이상 72%) 우세했다.

갤럽은 지난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는데,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의견은 2013년 25%, 2014년 35%, 2017년 34%, 2019년 35%였다. 같은 기간 반대 의견은 67%, 56%, 58%, 56%

였다. 또 동성애에 영향 요인에 대해 묻은 결과,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27%, '양육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 46%, '양쪽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12%였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갤럽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는가는 종교계·의학계 등에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다"며 "선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타고난 대로 살기를 주장하고, 후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개인 노력이나 양육/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보는 편"이라고 했다.

만약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져 해고된다면 타당한 조치라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었을 때는 12%만 '타당하다고' 했고, 81%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 2017년에 도 비슷한 결과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58%가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답했으며, 33%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진영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말에 드러질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합창(월)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열매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성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합창)
FAM에 오전 11:30(청년 합창)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르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 김나오미, 백선경, 로완리
신학사:임정열, 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서 배웠던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 평생에 영향을 끼칠 진리였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혹은 C. S. 루이스를 인용하는 연설의 내용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감동이었습니다. 딸의 연설을 들으면서 시종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얼바인 고등학교에서 전학시킬 때, 많이 망설였는데, 온상에서 보호만 받던 막내딸이 자기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주 좋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식컬 기독교 학교는 여러 교과 과정에 채플 하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과목을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가지고 라틴어와 성경 해석학, 수사학 및 논리학을 전통적인 클래식컬 커리큘럼으로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문학, 수학 및 과학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참된 진리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연구하여 논리적인 발표를 통해 진리를 수호할 뿐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당당한 리더로 훈련하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이같은 학교를 베델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뿐 아니라, 다른 인종도 아우르는 학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뜻이 있는 후원자들도 생각하고, 교회적으로도 신앙의 100년 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3세대, 4세대를 향한 거룩한 투자를 하십시오. 언젠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들이 우리를 업고 달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늘 보내고 싶었던 기독교 클래식 학교에 보내 고등학교 마지막 2년을 마쳤습니다.

우리 딸을 포함해서 졸업생이 총 5명이었습니다. 졸업식은 조촐했습니다. 자체 건물 없이 교회를 빌려 운영되는 학교여서, 체육관도 없고, 스포츠타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객도 제한되어 요란한 함성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내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어떤 졸업식보다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단순한 졸업식보다 부흥회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졸업생들이 한명씩 나와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생이 5명 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학생씩 나와 자기가 학교에

스승의 날!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목회에 대해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아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멘토 삼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를 자신의 멘토로 모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겸손한 것이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기에 멘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보다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기에, 나를 사랑하기에, 나의 모자람에 대해 서슴없이 지적해 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의 스승이요, 멘토인 것입니다.

김목사님이 2년 이상을 저와 함께 지내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모릅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김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을 잘 알기에 교회를 떠나고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 저를 ‘멘토’로 삼는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제 삶이 더 ‘멘토’ 다워져야 하거든요. “목회는 잘 참아야 해!”라고 말했다면, 제가 그렇게 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다 주님의 뜻을 더 살피야 해!”라고 했다면 제가 주님의 뜻을 더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목회의 승부는 기도야!”라고 했다면 제가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누군가 저를 멘토 삼는다면 그것이 제게 복된 일이지요. 그만큼 제 자신도 부족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멘토’라면 ‘멘토’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보냅니다. 미국에서는 5월 첫 번째 한 주간을 “Teacher’s Appreciation Week”으로 보내지요. 예년 같으면, 해정이 선생님에게 스타벅스 카드라도 보내드리는데, 팬데믹 상황이라는 핑계로 2020-2021년도 해정의 선생님께 누군지도 모르고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답임으로 나간 김충만 목사가 “목사님 오랜 만에 찾아뵙고 싶습니다.”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팬데믹이라 얼굴 본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같이 점심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대뜸, 선물을 내밀더군요.

“스승의 날이라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뜻하지 않은 김목사님의 선물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좋아하고 잘 사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계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교회론(3)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지금 우리는 교회론에 대한 깊은 묵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호까지 교회에 대한 유기적 이미지 (organic images)들을 세 가지로 탐구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둘째는 예수님의 신부 된 교회,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인 교회이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유기적 이미지 네 번째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위격이신 성령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성령의 전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진리이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전 3장 16-17절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한다.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인 벽돌 또는 건물로 하여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물리적인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철재로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실제 건축물이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벽돌이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믿는 이들의 유기적인 공동체 (organic communion)인 교회 자체를 성령의 성전으로 보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 시대에 옹골케 회복해야 한다. 영적인 건축물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한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교회에는 성령만 계신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전과 분리되어 존재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또한 함께 거하신다. 그러므로 영적인 건축물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그러하기에 22절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영단번에 성령의 전이 되었지만 (완료), 여전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엡 4:13)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1-2).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개개인 역시 성

령의 전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성령은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은 우리 믿는 자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그 존재와 사역의 모든 면에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탁류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존재의미는 퇴색된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그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교회의 순결을 짓밟고 더럽힌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교회론은 교회의 속성을 크게 네 가지로 논의해 왔다. 그 네 가지는 사도성 (apostolicity), 거룩성 (holiness), 통일성 (unity), 보편성 (universality)이다. 그 네 가지 속성들 중의 하나가 교회의 거룩성이며, 거룩성은 교회를 규정하는 매우 근본적인 속성이다.

교회의 거룩성이란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 하나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 (already set apart or sanctified)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구성되는 순간에 교회가 이미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선언하신다. 이

것은 조직신학 구원론에서 다루지는 확정적 또는 결정적 성화 (definitive sanctification)와 연결된다

교회가 영단번에 확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실재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한 공동체는 아직 아니다 (but not yet). 여전히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가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완전한 거룩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교회가 실재적으로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서 완전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교회도 완전에는 이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회를 당신의 전과 거처로 삼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교회가 거룩이라는 면에서 완전을 향하여 계속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교회가 날마다 거룩하여질 때,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방황할 때 교회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수 밖에 없다. 교회의 선택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을 힘입어, 지속적으로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수 주병제작
 교미로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빈곤

요한계시록 3:14-22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중략)...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65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동쪽으로는 에게해 연안으로 가는 에베소가 있고, 남쪽으로는 시리아로 가는 브루기아 지역의 관문으로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직조사업이 왕성했고 안약을 만드는 풀이 자생하는 곳으로 안약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여유로운 생활의 삶을 살다보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렇게 되어 지기를 믿고 동의한다는 아멘으로 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 얻기를 소원하시며 하늘나라를 물려주시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증거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예수님)으로 창조해 내실 때에 그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되어 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듯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항상 지켜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믿음과 내세소망의 확신이 없으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遺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라지면 우리에겐 지옥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인들은 육체적인 세상 조건만을 중요시하여 그들의 신앙은 끝이 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죽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영적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곤고(곤란하고 괴로움)로 인해 지옥불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련한 처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서 심령은 죽었고 유황불에 던져지기 직전이라고 하

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 육신의 세상조건만을 바라보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8절의 “내가 너를 권하노니”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는 그 보혈의 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의(義)의 세마포 예복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미어지게 하실 때에 중심으로 애 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 엄청난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서 예수님이 임해 주시는 것이 하얀 세마포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전날 지은 죄와 허물, 괴로움이 이 세마포로 인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완전한 구속(拘束)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탐욕과 허욕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생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 서둘러서 회개하라고 재촉하십니다.

20절에 “불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은 무디고 완악한 심령들이 마음 문을 굳게 닫아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일러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못 박하신 피 묻은 손이 애타는 심정으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애타는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적 양식으로 먹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교회 부흥의 장해요인이 되고 목자가 목회하는데 전혀 쓸모없는 자로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서 유기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회개해서 주변 환경과 형편, 원수마귀의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21절)”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여서 권고하고 질책하고 야단을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인(火印)맞은 심령입니다. 불로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것처럼 그 자리는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무디고 완악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믿고 회개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어 지금까지의 죄악을 가리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 도시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게 되면 나라도 망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
| T V 한국 방송 설교 | | | 한국 신문 설교 |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북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
| T V 미국 방송 설교 |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 AM1310 기쁜소리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
| 기독교일보 |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 |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자산어보> (2)

영화 <자산어보>로 본 우리나라의 과학만능주의

현대 자연과학 여러 중대가설 모두 완벽한 검증 불가능 새로운 방향으로 반증되고 폐기되고 재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겸손한 한계인식이, 자연과학 대하는 태도여야 <자산어보>, 아쉽게도 과학기술로 심하게 기운 편향성

◆과학에의 열망: 과학기술로 중흥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상 최초로 과학기술의 무시무시한 힘을 처절하게 체험한 시기가 한다면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을 지목할 수 있다. 북한 독재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구걸하다시피 하여 얻어낸 무기와 자원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한 이 전쟁은 대한민국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

영화 <자산어보>에 묘사되는 것처럼 19세기 조선은 성리학 근본주의에 찌들어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어려웠던 까닭에, 침략자들을 압도할 무기가 공업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군은 전쟁 초반 소련의 무기 지원을 받은 북한군에게 형편없이 밀렸다. 부족한 무기와 자원, 병력을 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악전고투하던 대한민국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병력의 도움을 얻어 구사일생으로 회생했다.

한국 역사상 단일 전쟁으로 사망자가 수가 가장 많았던(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137만명 사망)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재건과 성장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는 군사,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과업에 광적으로 집착했다.

두 사람은 한국당 당시 대한민국이 외세의 도움이 없었다면 필히 멸망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 미군이 선보인 앞선 과학기술과 공업력의 힘 역시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래서 휴전 이후 두 지도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거나 베껴 오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구걸과 편법이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무릅쓰고, 그야말로 '살기 위해' 과학기술 수입과 육성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 또한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는 경제성세는 이러한 절박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부문으로 지도자들의 커다란 실책과 비위(非違)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학, 의료, 산업부문 전반에서는 기술혁신이 그치지 않았다.

비록 학문적 기반과 자원, 그리고 관련 인프라의 열악함 때문에 기술발전 불균형이 심각하긴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첨단 과학기술이 갖는 군사적, 경제적 힘을 비교적 단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한 까닭에, 우리 한국인들은 사상 유례없이 빠른 무종교화 및 반종교화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었다.

유교 전통, 무교 전통은 물론이고, 1980년대까지 급격히 교세를 확장했던 기독교 신앙도 현재로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삶의 가치마저 내맡기는 과학만능주의 사고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과학주의 사고가 팽배한 세태,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한국의 교육과정은 창의성 없이 암기하고 모방하고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데 특화된 동아시아 특유의 사고구조와 맞물려 무종교화 및 반종교화를 가속화 시킬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발전마저 가로막는 페단을 낳게 된다.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의 힘을 맹신하는 태도가 오히려 과학기술의 온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아이러니는, 과학기술의 한계에 대한 사유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과학에의 맹신: 과학주의의 과학적 한계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그의 저서 <과학적 신학>(A Scientific Theology)에서, 자연과학이 가진 인식적 한계를 지적한다. 자연과학 이론과 가설 전체는 최초 설정될 당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각의 내용에 따라 그 검증 가능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물을 빙점 이하로 얼리면 얼음이 된다"는 가설, 혹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가설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반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한다"는 정상우주론(Steady-state theory)이나 "인류는 단순한 구조의 유기물이 진화되어 탄생했다"는 진화론의 기본가설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나 반복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애초 인류는 우주의 탄생과 인류의 탄생을 눈으로 목격한 바 없으며, 이러한 거대한 현상들은 인간의 힘으로 재현, 반복이 불가능하다.

결국 맥그래스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근본적이고 거시적이며 중대한 자연과학 가설 대다수는 인식적으로 유한한 인간 입장에서 항상 가설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힘으로 그 진리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가설들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믿음의 영역에 진입한다. 종교적 믿음이 아닌 과학에 대한 믿음에 몰입하는 것이다.

과학주의는 이렇듯 진리로 주장할 수 없는 가설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역시 주장을 펼치는 독단적 태도로부터 유래된다. 따라서 과학주의는 그것이 신봉



실학자 정약전의 실사구시 정신을 그려낸 영화 <자산어보>.

하는 과학 외의 가치에 대한 모든 믿음을 부정하는데, 특히 종교적 믿음, 신앙에 대해 그러하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예로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등이 고수하는 '새로운 무신론(New Atheism)'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독단적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맹목적 무신론은 한국의 역사적 토양에 대단히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제대로 된 기술문명의 결여 때문에 처참한 고통을 겪었고, 그 기술문명을 갖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부터 급격한 경제적·문화적 성장을 경험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연과학 발전 자체가 삶의 구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영화 <자산어보> 속의 성리학 질타와 실학 숭상 태도는 이러한 정서적 배경 덕에, 관객들 다수에게 큰 공감을 얻게 된다.

한국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과학주의적 태도는 인간의 삶에 신앙이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데 더해, 자연과학 자체의 온전한 발전까지 방해한다.

이는 입증될 수 없는 항구적 가설들을 진리로 옹립함으로써, 해당 가설들에 대한 반증적 요소들을 무시하는 편향된 사고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의 일부 저명 과학 유튜버 채널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현생 인류 사이의 과도기적 화석(missing link)이 이미 발견되었고, 이것이 진화의 부정할 수 없는 입증 자료라고 단언한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2021년 노벨 생리학상 또는 의학상 부문은 이를 주장한 한국의 유튜버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과도기적 화석의 유무 여부는 진화론 입증의 부분적 자료에 불과하다. 유인원 화석과 고대 인류 화석이 단층 시간대 별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진화의 시간적 연속성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발견은 인류와 다른 종들이 인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시간적 병치의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근의 화석 발견을

진화의 시간적 연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미 그 해석의 태도를 결정짓는 편견에서 비롯된 처사이다.

그리고 이런 발견은 진화론의 여러 다른 본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유전자 희석(genetic dilution) 문제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화론은 단순히 몇 개의 자료만으로 입증될 수 없는, 생물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가설로서 그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학문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의 진리 여부 모두는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

자연과학의 진정한 발전은 이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서구에서도 진화 가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문적 소양이 있는 이들이라면, 모두 그것이 절대 진리로 입증될 수 없는 것임을 우선 수긍하고 그것의 높은 개연성을 내세울 뿐이다.

이러한 열린 태도는 서구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 자주 발견된다. 영화 <아이 오리진스>(I Origins, 2014)에서는 무신론자이자 분자생물학자인 주인공 이안(마이클 피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대사가 나온다. "진화가설은) 가정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다."

진화 가설 입증을 위해 전념하는 학자가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즉 주관적으로는 진화 가설이 사실일 것이라 믿어도,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그것이 아직 사실이라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영화 <자산어보>는 성리학이라는 형이상학적 신념 체계에서 빠져나와 자연과학 방법에 몰두하는 실학자를 한 명의 영웅으로, 진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로 묘사한다.

물론 성리학 자체는 인간의 삶과 인식 수준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이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처럼, 성리학을 비롯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이상학 체계는 나름의 모순과 결함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자연과학 발전이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 믿는 과학주의적 태도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는 신앙에도, 과학에도,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연과학과 기술문명 발전으로 인류가 얻은 혜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미 과학기술이 전해주는 이익에 익숙해진 현대인이 과학 없는 신앙에만 의존하던 중세나 고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만능은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 인문학계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통해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학기술의 적절한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반면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 정황상 이러한 반성적 사유를 수행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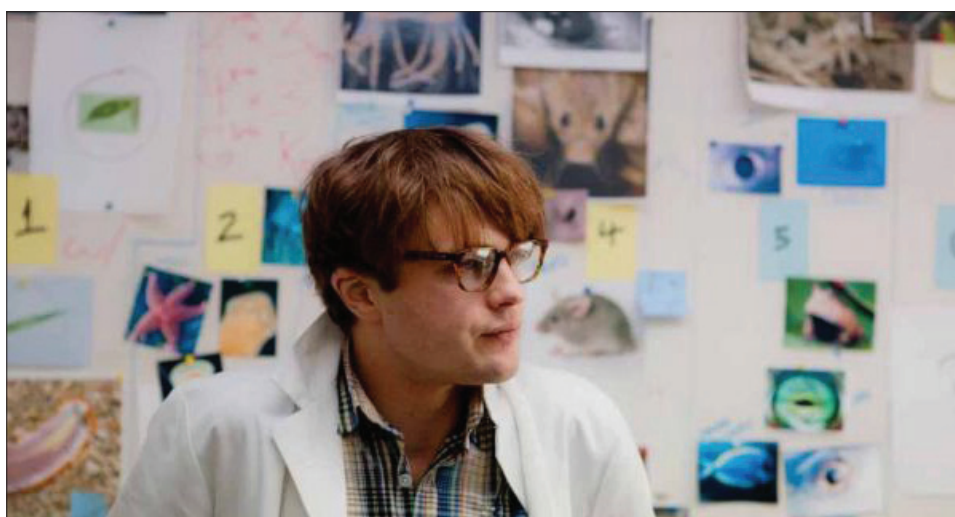
한국전쟁은 기술문명의 몰염리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문명의 힘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 과학기술은 외골수적 맹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점을 지적하고, 과학기술의 올바른 위상을 지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신앙의 관점에서 현대 자연과학의 여러 중대가설 모두는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잠정적 개연성을 갖는 이론일 뿐이며, 인간의 이해방법 변화와 우주적 차원의 환경변화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반증되고, 폐기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겸손한 한계인식이 자연과학을 대하는 적법한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영화 <자산어보>의 서사에 드러나는 어조 전체는 아쉽게도, 과학기술 편에 심하게 기울어진 편향성을 갖는다고 평할 수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진화론이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함을 지적하는 영화 <아이 오리진스>



과학만능주의에 기반한 전투적 무신론, 새로운 무신론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인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무지의 지, 질문의 힘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본질적 질문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
정직한 대답, 삶의 목적과 방향 붙잡게 해



질문의 힘
사이트 다카시 | 남소영 역
루비박스 | 216쪽

초면에 '3분' 만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
생존력이 좌우된다.

대화의
순조로운 진행은
질문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질문 능력이
뛰어나면
실력이 없어도
흥미로운
정보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질문이 재미있으면
누구나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호모 콰렌스’는 질문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지적 능력을 가졌다.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때문일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무언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마다 질문을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질문은 단순한 말보다 더 깊은 곳까지 파헤친다. 말보다 열 배쯤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 낸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다. “믿기진 않겠지만, 인간이 지난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의 명수이며, 질문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라고 여긴 철학자였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상대에게 질문을 해서 직접 깨닫게 한다.

특히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무지(無知)의 지(知)’를 알게 하려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의 가치와 힘을 정확히 평가하고 실천한 인물이다.

조금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다. 주입식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질문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항상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질문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세계 10대 부자 중 8명이 유대인이다. 세계 500대 기업 CEO의 41.5%가 유대인이다. 전체 노벨상 23% 이상(230개 수상)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질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질문은 뇌를 격동시켜 최고의 뇌를 만들어준다. 왜 그런가? 질문과 토론, 논쟁만큼 뇌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

이다. 변호사와 검사의 법정 논쟁을 떠올려 보라. 그들의 논쟁은 가장 격렬한 머리싸움이다. 법정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왜 옳은지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거나 증거를 댈 때 그것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면 판결에서 지고 만다.

질문도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정보를 이끌어 내고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나쁜 질문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까지 한다. 좋은 질문은 힘이 있다. 좋은 질문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이트 다카시의 《질문의 힘》은 좋은 안내서가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질문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질문하는 비결을 알기 전에 질문에 능력이라는 개념을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럴 때 확실히 질문 능력이 향상된다.”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무대를 마련하려면 제일 먼저 질문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보통 질문보다는 해답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답보다 질문이 먼저다. 좋은 질문이 좋은 해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능력이란 대답하는 사람이 이미 준비한 지식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지식을 말하도록 자극하고 유발하는 것, 즉 영감을 주는 질문을 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상대방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 즉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가장 창조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질문의 최종 목표다.”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보라.”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다. “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한 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한 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을 좋은 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을 하려고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질문 능력을 키우는 자신만의 훈련법을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질문은 세 가지라고 말한다.

첫째,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둘째, 머릿속을 정리해 주는 질문이다. 셋째,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질문이다.

저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은 ‘따라가며 방향 틀기’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대화를 제대로 이어 나가기 힘들다. 그렇다고 단순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야기가 발전하지 않는다. 나는 따라가기를 전제로 해서 각도를 맞춰 조금씩 옆으로 트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임을 경험으로 깨달았다.”

이 책이 좋은 것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질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인간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다.

질문의 힘이 크다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않고 늘 던지고 살아가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인은 특정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수 있게 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호기심을 되살리려면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라는 질문을 생활화하면 된다. ©Ken Treloar on Unsplash

2021 - 2022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4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1@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선발 일정

- ▶ 신청서 접수기간: 2021년 4월 10일 ~ 5월 31일
- ▶ 선발 결과 발표: 2021년 7월 25일 예정
- ▶ 장학금 수여식: 2021년 8월 15일 예정 (추후 발표)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 ~ 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
- **문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 대면 또는 ZOOM 비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연합)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연합)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통일부교육위원



(구출구제)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정치)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흥보팀장



(지하교회)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영상문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영어2세)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증언)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총괄)
박상원 목사
GBMW



주관: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협력: 기독교동작

협찬: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 생중계